

# 실전감 조율... 주전 경쟁 시작됐다



##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 ‘루키’ 홍건희·윤정우, 이영수 투·타서 맹활약 조감독, 라인업 테스트에 선수들 눈도장 찍기

KIA 타이거즈의 소리없는 주전 전쟁이 시작됐다.

일본 미야자키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KIA 타이거즈가 13일 휴가시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의 연습경기를 가졌다. 1회초 두산 오재원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어려운 출발을 한 KIA는 7-8로 재역전패를 당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으로 5차례 자체 청백전을 치렀던 KIA는 이날 두산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본격적인 주전 윤곽 그리기에 나섰다.

이용규와 김선빈으로 테이블 세터진을 구성한 조범현 감독은 김다원·김주형·김상훈을 클린업 트리오에 배치했다. 이어 최훈락·차일목·이영수·홍재호로 타선이 짜여졌다. 마운드에는 김희걸·박정태·신용운·박성

호·심동섭·유동훈·홍건희·손영민이 차례차례 올라 구위 점검에 나섰다.

필승 라인업이라기 보다는 테스트 성격이 강한 라인업이었다.

프로야구 최장신(207cm) 투수 장민익을 선발로 내보낸 두산도 정진호·정수빈에게 테이블 세터를 맡겼고, 오재원·윤석민·이상열로 클린업 트리오로 내세워 전력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경기장에는 실전 못지 않은 열기가 가득했다. 몸을 던지는 수비와 슬라이딩 그리고 기습번트까지 나올 정도로 양팀 선수들은 주전 도약을 위한 허슬플레이를 선보였다.

KIA 타선에서는 중견수 이용규와 1루를 맡은 이영수의 공격력이 돋보였다. 1번과 8

번에 자리한 두 선수는 각각 3안타를 터트리며 타점도 하나씩 기록했다. 신인 외야수 윤정우는 8회 이용규의 대타로 나와 2타점 3루타를 터트리는 타격 감각을 선보였다.

마운드에서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박정태와 재활을 졸업하고 1군 복귀를 노리고 있는 신용운 그리고 신인 홍건희가 이날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좌완 불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박정태는 3회 등판, 두산 첫타자 윤석민에게 우전안타를 맞기는 했지만 1사에서 고영민과 이상열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실점없이 이날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재활과 부진으로 1군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신용운은 1과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

첫 연습경기에 나선 ‘루키’ 홍건희는 8회초 김재호·정진호·정수빈을 범타로 돌려세우며 합격점을 받았다. 이날 최고 구속은 142km를 기록하는 등 제 2의 윤석민으로 주목받고 있는 홍건희의 출발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두산과의 첫 연습경기를 치른 KIA는 오는 19일에는 사이토시에 있는 사이토 구장에서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와 연습경기를 갖고 주전 경쟁에 속도를 가하게 된다.

/wool@kwangju.co.kr



13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연습경기에서 4회초 2루타로 출루한 이영수가 이용규의 적시타 때 홈을 밟은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 한화, 이범호 보상선수 안영명 ‘찜’

투수 안영명의 친정팀 복귀로 ‘이범호발 후폭풍’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화 이글스가 12일 FA 신분으로 KIA에 새동지를 쓴 이범호의 보상선수로 투수 안영명을 선택했다. 안영명은 보상선수로 지명되면서 지난해 장성호와의 3대3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지 1년도 안돼 친정인 한화에 복귀하게 됐다.

보상선수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이범호의 ‘갑작 영입’으로 동요했던 KIA 선수단의 캠프 분위기에 변화가 예상된다.

보상선수 명단 제출 마감일까지 KIA 미야자키 캠프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보상선수

로 한화에 가느냐?’였다.

18일 보호선수 명단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면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보상선수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왔다. 언론에서도 선수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캠프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선수들은 ‘미리 짐을 싸두었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보상선수는 캠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조범현 감독이 직접 전체 미팅 시간에 훈련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주장 최희섭은 “그동안 보상선수가 정해

## KIA선수단 동요 진정국면

지지 않으면서 선수들 사이에 동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단락 된 만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었다”며 “미공에서 활동할 때 갑작스런 이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팀을 옮긴 일도 많았다. 영명에도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자신을 알아왔기 때문에 선택된 거라 생각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범호 합류로 불어 닦았던 선수단 긴장의 바람은 안영명의 지명으로 일단 잠잠해졌다. 안영명이 오픈플레이 좋지 않아 한국에서 개인훈련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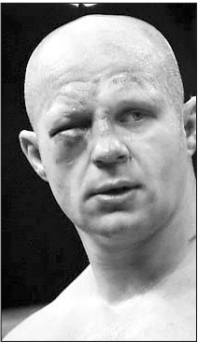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1 SK 핸드볼 코리아컵 대회 인천도시개발과 조선대학교의 경기에서 조선대학교 용준호가 슈팅을 날리고 있다.

## ‘격투기 황제’ 표도르 실바에 TKO패 충격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격투기 황제’ 표도르 에멜리아넨코(35·러시아·사진)가 충격의 2연패를 당했다.



표도르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스트라이크로스 월드그랑프리 헤비급 8강전에서 브라질의 안토니오 실바(브라질)에 TKO로 패했다.

지난해 6월 브라질 출신 파브리치오 베르돔에게 10년 만에 패한 표도르는 이날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도르는 이날 1라운드에서 난타전을 펼쳐 팽팽한 싸움을 펼쳤지만 2라운드에서는 테이크다운을 당하는 등 시종 밀렸다. 결국 2라운드를 마치고 표도르의 눈 부위를 검사한 의사와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표도르는 종합격투기에서 3패째(31승)를 당했고 실바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16승 2패의 전적을 올렸다.

/연합뉴스

## 장선재 쇼사이클 2연속 3관왕

한국 사이클의 간판스타 장선재(27·대한지적공사)가 아시아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3관왕을 달성했다.

장선재는 11일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열린 대회 남자 엘리트 스크래치 10km 경기에서 가장 먼저 결승점에 끝인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경기에서는 트랙 30바퀴를 돌아 마지막 바퀴에서 결승선을 지나간 차례대로 순위를 결정한다.

전날 개인추발 4km에서 4분35초370으로 우승했던 장선재는 이날 단체추발에서도 박성백(국민체육진흥공단), 박선호(서울시청), 박건우(대한지적공사)와 함께 나서 4분 17초213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장선재는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추발과 단체추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3관왕에 오르며 최강자의 입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 한국 스쿼시 쇼 경기력 발전상

지난해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스쿼시 여자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한국 대표팀이 아시아 스쿼시연맹이 주는 2010 경기력 발전상을 받았다고 대한스쿼시연맹이 13일 밝혔다. 한국은 스쿼시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1998년 방콕 대회에서 단식 이혜경이 동메달을 목에 건 이후 12년 만에 광저우에서 다시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또 국가대표팀 구문희 감독은 아시안연맹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공사·조선대 나란히 고배

### 핸드볼 코리아컵 1차전

2011 SK 핸드볼 코리아컵에 참가한 광주도시공사(여자부)와 조선대학교(남자부)가 예선 첫 경기에서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조선대는 1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부 예선 B조 1차전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경기에서 40-26으로 패배를 당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유동근(9골)과 엄효원(8골)이 17골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의 주역이 됐으며 조선대는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강일구(35)의 선방에 막혀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스코어를 기록했다.

앞서 12일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부 B조 1차전에서는 지난해 5월 창단 이후 전국체전

에 이어 두번째 출전한 광주도시공사가 3년 연속 정상에 도전하는 인천시체육회에 32-23으로 패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인천시체육회 오영란(39)은 상대 슈팅 17개 가운데 10개를 막는 선방을 펼쳤다. 또 여자부 필드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광주도시공사 홍정호(37)는 4골을 넣으며 분전했다.

14일 조선대는 두산베어스와, 광주도시공사는 한국체대와 예선 2차전을 각각 치른다.

한편, 11일부터 27일까지 서울학생체육관과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1 SK 핸드볼 코리아컵은 이제껏 써왔던 ‘핸드볼 큰잔치’라는 이름을 버리고 ‘코리아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http://kjmarathon.co.kr



2011년 마라톤의 시작은 3월 1일 광주에서

## 제46회 광주일보

#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1. 3. 1 | 화 08:30~16:00  
풀코스 출발 09:00

| 장 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 남평교

| 대회종목 | 5km, 하프코스, 풀코스

| 접수마감 | 2011년 2월 14일 (월)

### ■참가비

• 풀·하프 : 20,000원

• 5km : 10,000원

■단체참가 특전 : 지원금 지급

• 하프코스 이상 50인 이상 참가단체 : 20만원

• 하프코스 이상 30인 이상 참가단체 : 10만원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광주일보사)

• 광주은행 001-107-437903 • 국민은행 551-01-1468-999 • 농협 617-117-002371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전남육상경기연맹

| 후 원 | 광주지방보훈청·광주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광주남부경찰서·나주경찰서

| 참가문의 | 062-220-0541